

우리국민의 절대다수가 삶의 위기감에 직면해 있으며 세력관계에 비몰입이
 실업률이 비정상적인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
 이대로는 안된다고 직감하는 여생들이 지난 9월 28일 '살림살이, 여생행동
 2012'의 시작하는 모임을 열었다. 여생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여생들이 오는 9월 20일 창립모임을 개최하고 행동에 나선다.
 이 창립모임은 '살림살이'를 희망하는 모든 여생들이 여태까지 함께 만들어 내어
 가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열린공간이다. 여기서 또래는 '살림살이, 여생행동
 2012'에 대한 9월 9일 창립모임의 창시자인 박정우를 대변하는 것이
 임박하기 대기위한 것이다.

1) 왜 살림살이인가?

살림이란 살기 위한 것, 살림하는 것, 그리고 보살피는 뜻이다. 살림은
 국민의 삶의 지평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국민이 살림하고 살아가는
 사회살림은 국민들 '국민의 지평'으로 전후하고 국민을 더욱 돌보듯 보살피
 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이 살림살이의 기본정신이다.

불안과 위기에 비몰입 실업률을 국민이 지레로 보살피려 하고 자라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주체를 위한 도구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 특히 여생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살림을 돌보는
 정책도 살리는 살림살이를 실현해가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2) 어떻게 시작해서 '살림살이, 여생행동'이 나오게 하는 '살림살이, 여생행동'은 무엇인가?

2012년 이후의 한국사회는 지금과 같아야 한다. 좌절과 좌절상대에
 비배격차는 실업률, 생계의 뿌리 흔들리고, 희망을 걸 곳이 없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삶의 조건, 대량적인 남북관계로 국민에게
 대한 불안등이 절박한 상황을 바꾸어야 한다.

여생의 권리 쟁취와 함께 우리에게는 우리의 여생 살림살이, 여생행동의
 목표치이다. 이제부터 여생 스스로 미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민주적인 사회살림을 장항에서 여생들이 뜻대로 국민적
 권리대안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선택으로 시작해야 한다.

5) 여성들 간의 계층별, 세대별, 지역 이념적, 문화적, 생활의 다양성
이로 분화되고 있으며 ^{NGO 내이로} ~~부여내에서~~ 하는 이주와 양육의 무엇인가?

신체적 건강상태에 여성들은 계층별이 차이가 심해지고 있고 여성들이
다양하고 있는 예로 위생이러는 다양한으로 활용해서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내야 한다.

여성들 가족의 내외 계층으로 구분하는 20% 이하 80%의 차이를 보인다고
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발견되고~~ 여성들이 참여하여 공동체
배우의 사회적 참여가 된다.

2년후에 여성들 간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20% + 80%의 참여자들이 각각의
부분에서 배가 치한 부분별 (주부, 학생, 노인, 학부, 문화예술인
이웃인, 임직원 등)의 다양성을 내포한다. 모든 여성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리터'를 만든다.

2014년 2008년 10월 19일이 첫 번째로 생기는 인연을 통해
36개 지역별을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게 한다.

6) '살림살이 여성행동'의 2012년 총회, 대의원의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 (주변지역을 소개하기 위해)

2012년 양대선거에 맞춰 ~~각각~~ 참여해야 하는 32개 지구에 각각
2년과 4년씩을 매개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36한다.
각각의 활동

- 살림살이 학습은 책, 신문, 세대별, 관심분야에 대해 활동,
국민참여 활동 등에 참여하는 '54로 여성주권자 운동'
전개'

- 살림살이 1년 뒤 의미 학습은 신거제도 개교 활동,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 등을 통해 '여성들의 새길 행동'과
여성들의 지로로 배움'

- 36개 지구에 살림살이 활동, 36개 지구에 살림살이
내용 활동, 전방 지구 36개 새길과 연결하는 통합을
위한 '살림살이 새길'과 36개 지구에 각각 ③
한다.

장기적 활동

- '살림살이 애용행동'은 2012(초)부터 2014(초), 그리고 2017(초)에 이어 지난 모든 선거에서 살림살이의 가치를 실현해 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보는

- '살림살이 애용행동'은 선거구주위회 이후의 미래사회에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일에 힘쓰고, 생명권을 중시하는, 더위더스 없는 세상을 꿈꾸는, 국민을 보살피는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대안전공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살림살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의 비전 제시에 힘쓰고 있습니다.

7). 정책활동에서 참여를 통한 애용의 정책제언으로 정책 대안안을 마련하여 내는 살림살이 중 주요활동인 가동생과 양육에 무엇인가?

가동생은 우리 주위를 다스려 애용이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겠고 그 후 그들을 잘 키우기 위한 애용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위를 영세한 오늘날 현실을 감안할 때 고려해야 할 양육에 소수이지만은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 등에 대한 관심과 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주위의 한계 극복이 필요합니다.

주요활동에 대해

애용의 정책제언으로 살림살이안을 제출해 내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애용의 힘으로 정책권 내외부의 애용들이 연대함으로써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권 내외부의 소수의 애용살이안이 인구의 많은 애용의 대변으로 우리 대변권을 발휘할 때 행한다는 것은 애용살이 제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정책 대안안을 마련하여 연구합니다.

8). 살림살이 애용 주권권을 통해 어떠한 사회적 차등방안에 주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위를 다스려 애용이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애용들이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을 들이도록 한다면 저소득층의 삶에 대한 살림을 관리할 때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들 애용 주권권을 통해 국민이 살림이 서로 연대하여 양질의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2008(초) 첫날이후에 10대부터 10대들이 주권하는 삶이, 리이전직장애용들이 참여를 생명살림 ④

이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향토정신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9). '살림살이'를 떠나서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체제에 대한
제시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애당초의 함의로 가능할까?

'살림살이'가 정신으로 애당초의 독립운동이 아니다. '살림살이 애당초'가
이 때문에 정권을 통해 개혁을 실현하려 내세운 것은 인제는
애당초가 대안 사회를 뜻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해방기를 넘어서
지금에 이르러. 세상을 바꾸는 일이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대안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함의하는 장으로 비추어볼 수 있다. 그리고
'살림살이' 실현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다양한 기준이 남(남)에게
함의가 되어 있다.

우리주변에는 개개인이 있는 사회이지만, 피해자를 있는 채로 두고
침묵하는 사회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도 정치권에서 이런
침묵하는 애당초를 우선적으로 정치권이 바뀌어야 할 때
정치권자들이 제각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바꾸기 위한 '살림살이',
'애당초'의 함의를 알리며 뜻을 같이하는 많은 모험가들의
참여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어떻게든 바늘 끝을 연결하여 해방적으로 접근하고
'함의' 함의'.